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단체명	뛰뛰빵빵
1. ※ 안전지도 활동을 통해 만든 지도의 사진, 그림, 캡처 등 (1~2쪽)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width: 15%;"> <p><뛰뛰빵빵>의 민족사관고등학교 교통안전 지도</p> </div> <div style="width: 85%;"> <p>⑤ 정문 진입로 ② ⑭ ⑮ 다산관, 다산관 주차장</p> <p>④ 충무관, 다산관 ⇄ 정문</p> <p>③ ⑦ ⑩ ⑫ ⑬ ⑰ ⑳</p> <p>▲ 덕고관 진입로</p> <p>⑧ ⑨ ⑪ ① ⑥ ⑬ ⑱ ⑳</p> <p>▲ 영어교육관, 덕고관 진입로</p> <p>▲ 민족교육관⇄체육관 ▲ 민족교육관 내 보도</p> </div> </div>	
2. ※ 안전 위험요소별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과정 ※ 개선방안을 공유하거나 제시하여 환류 또는 실제 개선되는 과정 ※ 위험 요소를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개선한 사례 (총 8쪽 내외)	
<p><활동 목적></p> <p>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는 128만m² 크기의 부지 내에 위치한 강의실의 위치가 다양하고 건물 간 거리가 넓기 때문에 민사고 학생들은 수업 이동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낸다. 본 팀은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위험요소 중에서도 이러한 일상에서의 경험으로부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떠올리게 되었다. 우리가 이용하는</p>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길이 안전한가라는 물음을 던졌고, 통행로의 높은 다양성과 높은 통행량에 비해 민사고 교정(校庭, 캠퍼스)의 교통안전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06명의 재학생으로부터 수집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 재학생 또한 교내 교통안전이 충분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괄호 안 수는 해당 항목으로 응답한 비율임. 괄호 앞 수는 해당 항목으로 응답한 설문 응답자 수임.
민사고 내에서 교통 또는 통행에 불편을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나요?
응답 106명

[문항 1-1. "민사고 내에서 교통 또는 통행에 불편을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나요?" 응답]

1.3. 무거나 목격한 불편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고르세요.
복사

[문항 5-1.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민사고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 시설을 모두 고르세요." 응답]

본 팀은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교내 교통안전에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 노력했다. 현존 시설 및 현행 제도에 교통 관련 법령을 대입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설 및 제도를 찾고, 토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통해서 민사고에 실질적인 교통안전과 이동권의 개선을 불러오고자 했다.

<법령 적용 및 제도적 지원 방안 탐색>

올해 1월에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도로 외의 곳(대학교, 아파트단지 등)에서도 보행자 보호가 의무화되었다. 이는 민사고 교정에서도 보행자 보호가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또는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횡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바 있다.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또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7조에 따르면 도로·상수도·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황성군청, 황성교육지원청, 강원도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민사고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들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본 법령을 근거로 국가기관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공립 학교와 같이 국가 재산일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적용되어서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위험성 평가〉

본 팀은 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KRAS, 4M을 참고 및 응용해서 민사고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침해하는 교정 내 위험요인을 구분하는 평가 기법을 도출해냈다. 민사고 교정 내 현존 시설 및 현행 제도를 탐구해서 기계설비적 요인, 관리적 요인, 인적 요인, 환경 생물적 요인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지, 위험성의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서 기술했다.

이하 표는 본 팀의 위험성 평가 기법의 정의이다.

평가구분	정의
기계설비적	제도에 의거하거나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당위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시설물이 없어서 발생하는 위험
관리적	이미 존재하는 시설물을 적절히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위험
인적	사용자의 심리 또는 행위가 주변에 영향을 주어서 발생하는 위험
환경생물적	자연환경에 의해 통행, 시설물 설치에 제약이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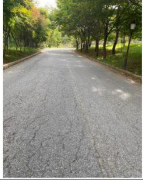



〈위험요소 분석〉

위험요소 분석	
1	2
	
불편 사항 전동휠체어 사용 시 운행이 매끄럽지 못함	불편 사항 전동휠체어 사용 시 출입 매끄럽지 못하며 전반적으로 운전이 불편함
평가 구분 관리적	평가 구분 관리적
위험 요인 도로 표면 갈라짐과 패임	위험 요인 램프(경사로)와 지면 간 틈이 존재함 / 전동휠체어를 사용해서 램프에서 내려와 우측으로 유턴할 때 높이차로 인해 크게 달랑거림
해결 방안 해당 부분을 매우기	해결 방안 램프에서 지면으로부터 뜨는 부분을 매워 틈을 없애기
3	4
	
불편 사항 우천 시 하수구를 밟고 미끄러짐 / 전동휠체어 사용 시 달랑거림	불편 사항 두 대 이상의 차량이 왕복 차선 양쪽을 각각 동시에 이용할 시 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구분하기 어려움 / 휠체어 사용 시 도로 좌측 배수구에 빠질 수 있음
평가 구분 관리적	평가 구분 관리적
위험 요인 빗물에 하수구 표면이 미끄러워짐 / 도로 교차 지점의 요철	위험 요인 시간이 지나서 중앙선이 희미해짐 / 배수구와 도로가 시각적으로 구분되지 않음
해결 방안 하수구 표면에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하기 / 시멘트로 요철 다듬기	해결 방안 중앙선 덧칠하기 / 시선유도시설(교갈, "빠짐 주의" 경고판) 설치하기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5	6
	
불편 사항 차량 간 또는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 발생할 수 있음	불편 사항 휠체어 사용 시 통행 불가 및 목발 사용 시 위험함
평가 구분 기계설비적	평가 구분 기계설비적
위험 요인 교통관리시설 및 도로안전시설 미비	위험 요인 건물(민족교육관) 정문의 단차 및 건물 내부 통행로의 계단
해결 방안 신호기, 횡단보도 등 시설 설치하기	해결 방안 램프 설치하기
7	8
	
불편 사항 휠체어 사용 시 바퀴가 끼일 수 있음 / 우천 시 미끄러질 위험	불편 사항 이동 중 발이 빠지거나 휠체어 사용 시 바퀴가 빠질 수 있음
평가 구분 관리적 / 기계설비적	평가 구분 관리적
위험 요인 하수구 틈새가 노출되어 있음 / 빗물에 하수구 표면이 미끄러워짐	위험 요인 노후되어 도로 측면이 탈락되고 매끄럽지 못함
해결 방안 틈새 보수하기 /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하기	해결 방안 도로 중간중간에 노후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수하기
9	10
	
불편 사항 이동 시 추락할 가능성 있음	불편 사항 보행자에 근접하고 빠르게 차량이 지나감. 경적을 잘 울리지 않아 보행자가 뒤에서 차량이 오는지 인지하지 못하기도 함.
평가 구분 기계설비적	평가 구분 기계설비적 / 인적
위험 요인 절벽에 추락 사고를 방지할 시설 미비	위험 요인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
해결 방안 낙상사고 경고판 설치하기, 나무를 활용해서 줄을 설치하거나 자연환경을 크게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펜스 설치하기,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기	해결 방안 보차도 경계선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하기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11	12
	
불편 사항 깊이 갈라지는 구간에서 목적지를 찾기 어려움 / 교차 지점에서 차량 또는 보행자가 합류할 것을 대비해서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움	불편 사항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짐 / 야간에 통행 시 계단 칸을 구분할 수 없음
평가 구분 기계설비적, 인적	평가 구분 관리적
위험 요인 경로 표지판 미비 / 급격한 커브길	위험 요인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부분적으로 벗겨져 있음 / 근처에 조명이 없어서 어두움
해결 방안 경로 표지판 설치하기 / 시야 확보 위해 커브 구간에 볼록거울 설치하기	해결 방안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붙이기 / 조명시설 설치하기, 야광 테이프 붙이기
13	14
	
불편 사항 두 대 이상의 차량이 왕복 차선 양쪽을 각각 동시에 이용할 시 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구분하기 어려움	불편 사항 교내에서 공사가 진행될 때 이를 인지하지 못한 학생들이 작업 현장에 실수로 접근할 수 있음
평가 구분 관리적	평가 구분 인적
위험 요인 시간이 지나서 중앙선이 희미해짐	위험 요인 공사 내용이 사전 고지되지 않음. 현장이 무방비로 노출된 채로 공사 작업이 이뤄짐.
해결 방안 중앙선 덧칠하기	해결 방안 공사 내용 사전 공지하기, 작업 현장을 둘러싸게 고갈을 공사 기간 동안 설치하기, 경고판 설치하기
15	16
	
불편 사항 보행 시 틈새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음	불편 사항 보행 또는 목발 사용 시 틈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음. 전통휠체어 사용 시 많이 걸려서 위험.
평가 구분 관리적	평가 구분 관리적
위험 요인 매트가 부분적으로 탈락했음. 교차 지점에서 매트가 완전히 접합되지 않음.	위험 요인 보도가 편평하지 않음. 볼록 사이 틈이 벌어짐.
해결 방안 탈락된 부분과 틈새 보수하기	해결 방안 굴곡이 큰 부분과 틈이 많이 벌어진 부분 보수하기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17	18
	
불편 사항 전동휠체어 사용 시 통행 진입 불가	불편 사항 전동휠체어 사용 시 주차 및 충전하기 곤란함
평가 구분 기계설비적	평가 구분 기계설비적
위험 요인 단차가 크게 존재함	위험 요인 전동휠체어 주차 용도로 지정된 구역이 없음
해결 방안 램프를 설치하거나 단차에 시멘트를 채우기	해결 방안 기숙사 근방에 전동휠체어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충전 시설을 설치하기
19	20
	
불편 사항 낙상,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함 / 다리 부상자가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움 / 전동휠체어가 건물(영어교육관)에 진입할 수 없음	불편 사항 보행 또는 목발 사용 시 걸려서 넘어짐. 전동휠체어 사용 시 많이 불편거림.
평가 구분 기계설비	평가 구분 관리적
위험 요인 계단 이용 시에 지지할 손잡이가 없음 / 램프가 없음	위험 요인 도로 일부분이 패이거나 매트가 겹쳐서 보도가 편평하지 않음.
해결 방안 손잡이 설치하기 / 램프 설치하기	해결 방안 도로에서 탈락된 부분을 매우기, 고무 소재 매트를 겹쳐서 설치하는 대신 아자매트를 한 겹 설치하기.
21	22
	
불편 사항 야간에 보행자와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할 수 없음	불편 사항 차량 간 또는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 발생할 수 있음
평가 구분 기계설비, 관리적	평가 구분 인적
위험 요인 가로등 미비 또는 고장	위험 요인 공간 협소 및 통행 규정 미비로 인해 혼잡함
해결 방안 가로등을 수리하고 새로 설치하기, 부분적으로 야광페인트 칠하기	해결 방안 전교생이 귀가하는 날과 같이 방문자와 차량이 불발 수 있는 특정 상황에 적용할 규정 마련하기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활동 결과〉






위험요소 분석에 따른 해결 방안 중에서 기능성 테이프 부착과 조명 설치와 같이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실천했다. 이를 통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야간 통행 시 시야 확보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본 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활동 기간 동안 위험요소를 탐색하고, 각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토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면서 본 활동을 이전에는 문제의식만 품고 있었던 교내 교통안전에 대해 진지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기회로 삼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발판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법령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학교 행정실 및 교직원과 상의해서 시설을 보수 및 설치하고 내규를 수립해서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민사고 내 교통안전을 이룩하고자 한다.



3. ※ 전체 진행한 과정 ※ 활동사진 포함 (총 1~2쪽 내외)

활동명	내용	기간
문헌 탐색	학교 평가 자료, 도로안전시설 관련 지침, 이동권 관련 논문 탐색을 통해서 활동의 방향성을 수립함.	8/21(일)~9/2(금)
설문지 제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진행했던 교통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참고해서 구글폼으로 총 15개 문항의 설문지를 제작함.	8/25(목)~8/30(화)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사진: 제작한 설문지 일부]	
법령 조사 및 공공기관 연락	9월 1일에 횡성군청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통화, 9월 6일에 횡성교육지원청과 통화, 9월 19일에 강원도교육청과 통화함.	9/1(목)~9/19(월)
설문 응답 수집	1, 2, 3학년에서 총 106명의 재학생이 설문에 응답했음.  [사진: 설문 응답 일부]	9/2(금)~9/17(토)
토의 및 보고서 작성	9월 넷째 주에 3회, 9월 다섯째 주에 3회, 10월 첫째 주에 4회에 걸쳐서 보고서 작성 제반 작업을 하고 수시로 토의하며 보고서를 작성함.  [사진: 토의 모습]	9/20(화)~10/9(일)
위험요소 탐색 및 분석	교정을 돌아다니면서 위험요소를 찾고 즉석에서 위험요인을 논의함.	9/22(목)~10/7(금)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사진1: 낭떠러지의 위험성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 / 사진 2: 차량 통행이 잦은 구역에서 대기하다가 차량이 지나갈 때 스피드건으로 속력을 측정하는 모습]	
위험요소 개선 실천	위험요인 분석에 따라서 본 팀이 직접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한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축광야광테이프, 미끄럼 방지 테이프, 태양광 정원등을 설치함.  [사진 1, 2: 정원등을 설치하는 모습 / 사진 3: 계단에 기능성 테이프를 부착하는 모습]	10/3(월)~10/9(일)

<활동 소감>
곽도연: 사업장에 특화된 기존의 위험성 평가 기법을 교육 및 생활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에 고스란히 적용하는 대신에 본 활동에 최적화된 새로운 기법을 고안하고 대입하면서 “안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분석하는 데에 정형화된 기법이 있으면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교통안전 관련 지침 수립을 통해서 민사고 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 교육기관, 교통시설에 더 적극적인 안전 개선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
박희수: 이 활동을 통해 주변을 더 예민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당연하다고 느끼던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다. 안전 지도 만들기 활동을 하기 전까지 본 활동에서 다른 불편함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 인간은 불편함에 익숙해지고 적응하며 산다라는 말을 체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과 이런 불편함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함을 깨달았다.

장지민: 안전에 예외는 없다.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할 수 있는 조치나 지원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 법률에 대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추후에는 미처 알아보지 못한 법률이나 세칙들이 있는지 더 조사하고, 공립•사립학교 모두 안전에 관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김상은: 이전에는 교내 교통안전에 대해 수동적이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다. 본 활동을 하며 위험요인들을 찾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학교가,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다.

위험요인들을 사회조사 방법론을 비롯해 사회과학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니 문제 해결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를 바라기만 하지 않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가 될 수 있어 이 활동이 나를 한 층 성장시켜주었다.